

Functionality of Food Required in Case of Disaster and New Lifestyles

# 재해 시 필요한 식품의 기능성과 새로운 생활방식

大聖寺谷 勇 / 미츠토쿠야(주) 대표이사

## 1. '그대로 OK 카레' 상품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당시 TV 등을 통해 일상이 돌연 극변하는 고통스러운 내용이 보도되었다. 일본의 미츠토쿠야(주)의 창업은 이 대지진과 같은 달이다.

동사는 '판매자·구매자·사회(三方)에게 모두 좋은 것'을 체현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보도를 보면서 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시카와현에서 이시노마키시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다.

현지에서는 주로 파괴된 가옥의 철거작업과 함께 가족여행, 결혼식 등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복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 조금 전까지 평화로웠던 일상이 급변한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식사와 관련한 문제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원봉사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식사 문제를 식품을 제조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해 피해자들, 위기관리를 하는 행정에서부터 정보를 듣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는 다 음과 같다.

- ① 알레르기 대응식(특정 원재료의 비 사용)
- ② 조리 불필요(물이나 열원을 사용하지 않음)
- ③ 주머니로써 사용할 수 있고, 가지고 운반하기 쉽고, 신속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 ④ 식사 후에 쓰레기가 최소한일 것
- ⑤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먹기 쉬울 것
- ⑥ 맛있고, 일반적으로 먹는 친숙한 맛일 것

[사진 1] 그대로 OK 카레 중간 매운맛



[사진 2] 그대로 OK 카레 단맛



[그림 1] 그대로 OK 카레의 먹는 법



법이나 사용방법 등을 누구나 알고 있어서 비상시에도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레토르트식품의 가능성을 추구한 ‘그대로 OK 카레’ ([사진 1], [사진 2], [그림 1])는 ①~⑦의 가능성을 추구한 신개념 레토르트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해해야만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레토르트 파우치 본체에 부드러운 디자인을 인쇄, 그 디자인을 통해 제품 기능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제품이 기존 레포르트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⑦ 유통기한이 최저 3년, 가능한 5년일 것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이시카와산업화자원활용추진펀드사업’에 계획을 응모해 채택되고 구상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구현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 II. 포장자재의 결정과 유용성

이시카와현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나 기업과 연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①~⑦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한 결과, ‘다층구조의 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레토르트식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약 10g 정도의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자재는 경량이면서 멸균한 상태로 상온보관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서 개봉방



에 참여해 ‘맛 부문 금상’ ([사진 3])을 수상했고, 동사의 본사 소재지인 이시카와현이 심사를 하는 ‘2020년 이시카와현 배리어프리사회추진상’에서는 ‘복지용구부문 장려상’ ([사진 4])의 영광을 안았다.

피난소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어떤 아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표기되어 있어서 알기 쉽다(30대 여성)’, ‘줄 서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어 개봉만하면 먹을 수 있어서 좋다(70대 남성)’, ‘충분한 세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식품에 접촉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능한 것이 좋다(70대 여성)’ 등의 인상적인 의견이었다.

상품이 만능은 아니지만, 확실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진 5]).

#### IV. 롤링 스톱에 요구되는 것

‘그대로 OK 카레’는 비축용 카레라이스로써 탄생, 많은 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받는 행운을 얻어 식감이 좋고 맛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량해왔다. 그 결과, 일반적인 비축용 식품에 머물지 않고, ‘맛있는 카레라이스’로써 보육원, 기업, 자치단체, 요양시설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비축식이나 약자를 위한 알레르기 대응식으로써 필요불가결한 비축방법의 하나인 ‘롤링 스톱(rolling+stock)법’과 ‘그대로 OK 카레’의 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평상시 수요인 ‘간단 편리한 식품’, ‘알레르기 대응의 주식’, ‘등산 등 아웃도어 식품’, ‘다이어트 식품(중간 매운 맛 290kcal·단맛 303kcal)’ 등 일반 사용 상황에 적합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토르트식품으로써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 V. 결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식품 ‘카레라이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더욱이 상온에서 장기보존하는 것이 가능한 ‘그대로 OK 카레’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배포,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에 비축식으로써 다양한 장소에 준비해두길 바란다. 